보건사회연구 36(1), 2016, 089-117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http://dx.doi.org/10.15709/hswr.2016.36.1.89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발달궤적 잠재계층 비교:
성장혼합모형(GMM)을 활용하여

김 동 하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공격성이 매우 개별적이고 변동적인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공격성의 발달궤적 유형을 탐색하고, 이를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CBCL 공격성 척도를 토대로 대상중심접근인 성장혼합모형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 시기까지 총 세 시점 가운데 최소한 두 시점 이상 응답한 604명의 청소년이다. 분석결과, 전체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궤적은 공격성 유지집단, 공격성 상승집단, 공격성 감소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아울러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발달궤적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빈곤 가구의 청소년들 중에서 일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매우 높은 공격성 수준을 보였으며, 청소년 후기에 공격성이 더 상승되는 고위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비빈곤 가구에서는 초기에 다양한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 청소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간 이하의 공격성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빈곤 가구에서는 공격성이 점차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보다 심각한 일탈행위에 대한 조기예측요인으로 공격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요용어: 청소년, 공격성, CBCL 척도, 잠재성장혼합모형, 빈곤

■ 투고일: 2016.1.31 ■ 수정일: 2016.3.14 ■ 게재확정일: 2016.3.18

Ⅰ. 서론

청소년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청소년 공격성은 흔히 발달환경에서의 위험요인이 이후의 더 심각한 일탈행위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간주된다(심응철, 1999; Farrell et al., 2005; Dodge, Coie, & Lynam, 2006). 따라서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성별과 연령 등의 개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오경자 등, 2005; 구인회 등, 2009; 서미정, 김경연, 2010; Laible, Carlo, & Raffaelli, 2000. 그러나 전통적으로 청소년 공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많은 요인들이 대부분 횡단연구를 토대로 검증되었거나 변수중심의 개인 간 비교연구로 밝혀진 것들이 많다. 이와 같이 한 시점에서 청소년 공격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검증하는 것은, 청소년이라는 개념과 공격성이라는 특성 모두가 개별적이고 변동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의 전체 공격성 발달과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과소 혹은 과대 해석할 소지가 높다.

최근 들어 종단자료의 증가와 변화분석을 위한 통계연구방법들이 발전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한 개인의 공격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에 더 주목하기 시작하였다(김동기, 홍세희, 2009). 이와 같이 개인 내적 관점에서 공격성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은 기존의 횡단자료를 활용한 개인 간 비교 연구에 비해 개입에 필요한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 내 공격성 변화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 역시 한계가 있는데, 주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평균성장곡선을 기반으로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를 탐색한다는 것이다(김동기, 홍세희, 2007; 서미정, 2009; 서미정, 김경연, 2010; 최경숙, 2011). 그 결과, 종단패널을 활용하여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양상을 검증한 많은 연구들이 마치 청소년 집단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고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공격성이 감소 혹은 증가한다는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다(김동기, 홍세희, 2007; 최경숙, 2011; Bongers, Koot, Van Der Ende, & Verhulst, 2004).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이후에 심각한 일탈행위로 가는 중요한 매개요인으로서의 공격성에 대한

예방적 개입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일 집단 내에서 상이한 변화를 유형화하는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활용하여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잠재성장모형과 잠재계층모형을 합쳐놓은 형태로 시간에 따른 청소년 공격성의 이질적인 변화유형을 확인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청소년 공격성을 탐색한 연구들이 많이 있고(Schaeffer et al., 2003; Bongers et al., 2004; Martins et al., 2008), 국내에서도 최근 몇몇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척도나 측정시점 선정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 특히 국내에서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 유형을 탐색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청소년패널을 활용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의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에 해당되는 몇 개의 질문만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김동기, 홍세희, 2009; 김세원, 김예성, 2009; 노언경, 홍세희, 2009; 서미정, 김경연, 2010; 최경숙, 2011). 공격성은 반드시 직접적인 형태의 외현적 공격성 뿐만 아니라 간접적 형태의 관계적 공격성 등 표현방식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데, 이와 같이 일부 공격성 문항만으로 변화궤적 유형을 탐색할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실질적인 공격성 발달과정에 대한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후기에서부터 청소년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직접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을 모두 포함하는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Achenbach, 1991) 공격성 척도를 활용하여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궤적을 대상중심(person-centered) 접근인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더 나아가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자 한다. 이로써 국내 청소년 공격성 발달과정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소년 공격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청소년 공격성의 개념과 영향요인: 빈곤을 중심으로

공격성은 근본적으로 개인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개인 간의 공격성에 차이를 유발하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탐색하고자 노력해왔다(Dodge et al., 2006). 공격성이란 개념 자체도 매우 포괄적이어서 표현 형태나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격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표현 형태에 따라서는 공격성을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직접 표현하는 외현적 공격성(overt or direct aggression)과, 또래집단에의 배제나 관계를 손상시키는 간접적 방식의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구분된다(Crick & Grotpeter, 1995; Loeber & Hay, 1997). 또한 기능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는 도구적 공격성(instrumental aggression)과 타인의 공격도발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일어나는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으로 구분된다(Little et al., 2003).

이와 같이 공격성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모든 인간에게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내재되고 표출될 수 있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소년의 공격성에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공격성의 양상과 정도에 있어서 주요변화가 바로 청소년기에 일어나기 때문이다(Loeber & Hay, 1997). 아울러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곧 성인기의 더 심각한 일탈행위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조기예측요인이기 때문에 청소년 공격성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적 접근은 사회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정책결정자들과 실천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성별(서미정, 김경연, 2010; Crick & Grotpeter, 1995; Karriker-Jaffer et al., 2008), 가구의 경제적 지위(오경자 등, 2005; 구인회 등, 2009; 윤은진, 2010; McNeilly-Choque et al., 1996), 부모와의 유대관계(박혜경, 박성연, 2002; 김정원, 김현주, 2007; Saner & Ellickson, 1996; Laible et al., 2000), 부모의 학대(김민정, 도현심, 2001; 김재철, 최지영, 2011; 김평화, 2013; 박현선 등, 2014; Klein & Forehand, 2000), 비행친구와의 접촉(박민정, 최보가, 2004; 김동기, 홍세희, 2007; 김세원, 김예성, 2009; 노언경, 홍세희, 2009; Saner & Ellickson, 1996) 등을 들 수 있다. 즉, 부모와의 유대 및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수록, 부모가 학대 및 강압적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비행친구들과 더 많이 교류할수록 아이의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되었다. 특히 아동기나 청소년기 초기에는 부모의 영향에 의해 공격성이 발달되는 반면에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호, 정혜원, 2009; 김동하, 2015; Thornberry et al., 1991). 반면 성별은 아직까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연구에 따라서 남학생이 보다 파괴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성을 보이고 여학생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고(Crick & Grotpeter, 1995), 이와 반대로 여학생이 더 높은 외현적 공격성을 보인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노언경, 홍세희, 2009). 또한 청소년의 공격성에는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어(박민정, 박혜원 2006; 장여옥, 2015; Barber & Harmon, 2002), 성별과 공격성 간의 관계가 일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빈곤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연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세원, 김예성, 2009). 물론 많은 학자들이 빈곤가정의 환경에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위험요인들이 청소년기의 공격성을 악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지만(구인회 등, 2009; 윤은진, 2010; Sampsom. Morenoff, & Earls, 1999), 일부 연구에서는 빈곤에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김세원, 김예성, 2009). 더 나아가 빈곤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일반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 보다 더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오승환, 2000). 이에 대해 몇몇 학자들은 한국의 빈곤이 아직까지 외국과 같이 대도시 슬럼지역의 만성적 빈곤의 형태를 띠지 않아 빈곤의 누적적 효과가 약할 가능성을 제시하거나(구인회 등, 2009), 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빈곤의 악영향을 억제했을 가능성(정익중, 2009)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빈곤과 청소년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까지 빈곤과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 관계를 조명한 국내 연구들이 대부분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 중 한 부분으로 공격성을 포함시켜서 검증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오승환, 2000; 구인회 등, 2009; 윤은진, 2010). 즉,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외현화 행동에 포함된 비행,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 등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이를 모두 유사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빈곤 환경에 따른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공격성은 어떤 특성 및 성질에 가까우며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같이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와는 차별적이다. 공격성을 다른 외현화 문제들과 분리해서 봐야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외 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크게 예방과 통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 입각해서 전개되어 왔다(Hawkins & Weis, 1985). 예방은 문제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행동을 막는 데 초점을 둔 것이고, 통제는 문제행동이 일어난 후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김동하, 2014). 이런 점에서 공격성은 보다 예방적이며 사전적 접근에 해당되고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은 통제중심의 사후적 접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격성은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방적 조기개입을 위해서는 공격성을 이들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빈곤 가구의 청소년들은 비빈곤 가구에 비해 공격성을 학습하고 내재화할 만한 환경적 위험요인과 스트레스가 많다고 알려졌다(구인회 등, 2009; 윤은진, 2010; Sampsom, Morenoff, & Earls, 1999). 대표적으로 부모의 학대 및 강압적 양육방식이 빈곤 가구에서 더 흔히 발생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지지되었다(김민정, 도현심, 2001; 김재철, 최지영, 2011; 김평화, 2013; Klein & Forehand, 2000). 따라서 이들의 공격성 발달궤적을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과 비교해보는 것은 청소년 공격성 발달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더 나아가 보다 민감하고 표적화된 예방적 계획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과 유형

지금까지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을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인 공격성의 평균변화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시간에 따른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을 검증한 연구는 모두 7편인데, 그 중 6편은 한국청소년패널을 활용하였고(김동기, 홍세희, 2009; 김세원, 김예성, 2009; 노언경, 홍세희, 2009; 서미정, 김경연, 2010; 한은영, 2014; Lee, 2014), 1편만이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공격성 변화궤적을 탐색하였다(최

나연, 허집, 2014). 한국청소년패널을 활용하여 공격성의 평균변화추이를 탐색한 연구들은 모두 한국청소년패널에서 제시하는 문항 중에 일부를 외현적 혹은 신체적 공격성이라는 이름으로 2문항에서 6문항까지 활용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중다패널로 구성된 한국청소년패널의 경우, 초4에서 중1 혹은 중2까지의 패널을 활용한 연구들은 공격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노언경, 홍세희, 2009; 서미정, 김경연, 2010; 한은영 2014; Lee, 2014), 중2에서 고1 혹은 고3까지의 패널을 활용한 연구들은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동기, 홍세희, 2009; 김세원, 김예성, 2009). 한편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공격성의 평균 변화궤적을 탐색한 최나연과 허집(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19문항의 CBCL 공격성 척도(Achenbach, 1991)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3시점 동안에 공격성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은 측정시점이 세 시점에 국한되어 있고, 측정시점 간 간격이 약 3년으로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 한계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궤적을 연구하기에는 아직까지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청소년패널은 공격성 척도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측정시점이 적고 시점 간 간격이 넓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한국청소년패널을 활용한 연구들은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한 검증 없이 연구자가 외현적 공격성 혹은 신체적 공격성에 해당되는 몇 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국내 아동 및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궤적에 대해 논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국외의 경우는 직접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을 모두 포함한 CBCL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격성 척도를 활용하여 장기간 동안의 공격성 변화추이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11살에서 19살까지의 주요 청소년기간 중에, 13~15세경에 공격성이 절정에 다다르다가 이후에는 초기상태와 유사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Karriker-Jaffer et al., 2008). 이와 같이 공격성의 발달궤적이 비선형적이라는 결과들이 지지되는 가운데, 몇몇 학자들은 비행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은 비교적 선형적으로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Prinzie, Onghena, & Hellinckx, 2006).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격성을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과는 구분해서 발달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최근에는 청소년 공격성의 평균적 발달궤적에 관심을 보인 연구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발달궤적 간에 잠재유형을 살펴본 연구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 간 잠재유형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자마다 공격성의 정의, 척도, 연령범위, 측정시간과 간격 등에 따라 상이한 변화유형으로 분류되지만, 공통적으로 아동기부터 후기 청소년까지 중저 수준의 공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집단과 초기에 낮은 공격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집단, 초기에 높은 공격성이 점차 감소하는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Schaeffer et al., 2003; Bongers et al., 2004; Martins et al., 2008). 한편, Martins와 그의 동료들(2013)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성의 변화궤적 유형을 탐색하였는데, 만성적으로 높은 공격성을 유지하는 집단(14.4%), 중간 수준의 공격성을 유지하는 집단(51.1%),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유지하는 집단(34.4%)으로 뚜렷이 구분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발달궤적을 탐색한 연구는 없으며, 이를 일반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과 비교한 연구는 더더욱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 공격성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의 갭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한국복지패널에서 제시된 직접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이 모두 포함된 CBCL의 공격성 척도를 활용하여 초등학생 후기부터 고등학생 후기까지의 공격성 발달궤적의 이질성을 탐색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궤적패턴이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궤적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발달궤적 유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가구자료와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포함한 9개도에 거주하는 7,072가구의 가구원 14,469명이 참석한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종단조사이다. 그 중에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조사는 1차(2009년), 4차(2009년), 7차(2012년)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전체 연구기간 동안 아동은 1차년도(2006년도)에는 10~12세이었다가 4차년도(2009년도)에는 13~15세, 7차년도(2012년도)에는 16~18세로 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기 전체를 포괄하게 된다. 1차년도 759명의 청소년을 기준으로 표준유지율은 4차년도 80.2%(609명), 7차년도 71.5%(521명)이며, 그 중 최소 두시점 이상 응답한 총 604명의 청소년을 최종 분석에 포함시켰다.

2. 측정도구

청소년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한국복지패널에 제시된 K-CBCL척도를 활용하였다. K-CBCL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list)를 오경자 등(1998)이 번안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중 공격성에 해당되는 19문항은 직접적 혹은 외현적 공격성(9문항)과 간접적 혹은 관계적 공격성(10문항)을 모두 포함한다(배도희, 오경자, 2010; Frick et al., 1993). 외현적 공격성에는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물건을 부순다' 등과 같이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의 공격성이 포함되고, 관계적 공격성에는 '고함을 지른다', '말다툼을 자주 한다' 등 간접적인 공격적 행동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들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묻는 것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까지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1차년도 .829, 4차년도 .844, 7차년도 .873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 유형을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로

구분해서 탐색하였는데, 이때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중위소득 60% 기준의 상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는 성별과 부모학대를 최종 모형에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성별은 공격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며, 부모학대는 청소년 공격성에 가장 강력하고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특히 빈곤 가구에서 부모의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구인회 등, 2009; 윤은진, 2010; 박현선 등, 2014; McNeilly-Choque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부모학대를 시간불변변수로 보고 1차 시점의 값을 적용하였다. 이 중 부모학대는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부모님이 나에게 멍청한 것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와 같이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전혀 없었다(1점)', '1년에 1~2번 정도(2점)', '2~3개월에 1~2번 정도(3점)', '한 달에 1~2번 정도(4점)', '일주일에 1~2번 정도(5점)'로 총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1차 시점에서 .731로 비교적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활용하였다. 이는 대상중심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방법으로 잠재성장모형을 확장하여 대상변수의 변화궤적 안에 알려지지 않은 하위집단들이 존재하는지를 밝히는데 유용한 방법이다(Muthén, 2002). 본 연구는 허만세(2014)의 2단계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먼저 전체 연구대상에 대한 공격성 변화궤적을 무조건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빈곤 가구과 비빈곤 가구로 구분해서 성별과 부모학대를 고려한 조건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공격성의 변화궤적 유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기반한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잠재계층의 수에 따라 모형을 비교하는 통계적 검증인 LRT검정(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과 정보준거지수(information

criteria)에 해당되는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BIC(sample-size-adjusted BIC), 분류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엔트로피(entropy) 지수를 고려하였다. 아울러 위에 제시된 모형의 적합도 뿐만 아니라 해석가능성, 집단의 크기, 이론적 연관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Nylund et al., 2007).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공격성에 대한 시점별 결측치는 0.7~14.6%로, 그 중 3차 시점의 청소년 공격성에 대한 결측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FIML은 무작위 결측치의 가정이 엄격히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편향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MI 못지않은 추정효율성을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다(Schafer & Olsen, 1998). 본 연구의 주요 분석은 Mplus 7.0(Muthén & Muthén, 2012)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이 51.3%(310명), 여학생이 48.7%(294명)로 남녀 간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1차년도인 2006년 기준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만10.9세(SD=.88)로 초등학생에 해당된다. 중위소득 60% 기준 이하의 상대적 빈곤가구는 2006년도에 31.6%(191가구), 2009년도에는 29.3%(177가구), 2012년도에는 20.2%(122가구)로 나타났다. 빈곤통계연보(김태완 등, 2007)에 의하면, 2006년도 중위가처분소득 60% 기준의 전국아동 상대빈곤율이 19.1%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복지패널에서는 2006년도에 31.6%인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과대표집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점별 청소년 공격성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23.58(SD=4.56), 2009년에는 23.08(SD=4.56), 2012년에는 22.32(SD=4.50)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반적으로 공격성의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시점별

평균값 차이 검증을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격성의 평균차이가 시점별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2006년도와 2009년도의 공격성이 2012년도의 공격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평균 점수만으로는 공격성의 변화궤적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 보다 자세하게 공격성 변화궤적 간의 잠재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와 평균차이 검증

구분		빈도(%)/평균(표준편차)		F값(Scheffe)
청소년 성별	남학생	310(51.3)		
	여학생	294(48.7)		
연령 (범위: 9~13세)	1차시점 평균연령	10.9(.88)		
		비빈곤가구	빈곤가구	
상대빈곤 (중위소득 60%기준)	2006년	388(64.2)	191(31.6)	
	2009년	427(70.7)	177(29.3)	
	2012년	403(66.7)	122(20.2)	
청소년 공격성	2006년	23.58(4.56)		10.57*** 2006>2012, 2009>2012
	2009년	23.08(4.56)		
	2012년	22.32(4.50)		

2.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 잠재계층분석

가. 전체 사례에 대한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 잠재계층 확인

아동기 후기에서 청소년기 후기까지 공격성의 변화궤적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두 단계에 거쳐 성장혼합분석(GMM)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연구대상에 대한 공격성 변화궤적은 무조건성장모형을 이용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로 구분해서 성별과 부모학대를 고려한 조건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공격성의 변화궤적을 비교하였다(허만세, 2014 참조).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GMM을 실시한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층수가 많아질수록 AIC, BIC, aBIC의 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LRT검정 결과, 모형

3과 모형 4의 검정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모형 3이 더 간명하면서도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엔트로피 지수 역시 모형 3이 모형 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전체 사례에 대해서는 모형 3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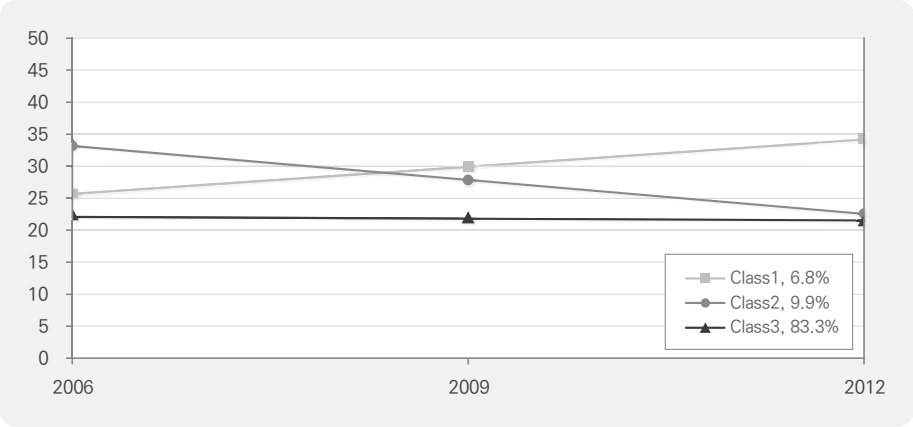
표 2. 전체 사례에 대한 청소년 공격성의 잠재계층 모형 검증

(n=604)

모형	Likelihood Ratio χ^2	df	AIC	BIC	Adjusted BIC	LRT: (p-Value)	Entropy
2	-4825.420	8	9666.839	9702.068	9676.670	.000	.935
3	-4749.176	11	9520.352	9568.792	9533.869	.001	.898
4	-4718.825	14	9465.651	9527.301	9482.854	.388	.867
5	-4688.689	17	9417.378	9505.449	9441.954	.118	.868

최종적으로 결정된 모형 3을 기준으로 전체 사례에 대한 공격성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체 중 약 83.3%(509명, class 3)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격성의 평균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집단으로, 중간정도의 공격성을 초등학생 시기부터 고등학생 시기까지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6.8%(40명, class 1)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격성이 점차 증가하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9.9%(55명, class 2)는 초등학생 후기에 높은 공격성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해서 공격성의 정도가 2012년의 청소년 후기에는 평균수준으로 떨어지는 집단이다. 이와 같이 공격성의 변화궤적이 중간 수준에서 유지되는 집단, 상승집단, 감소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chaeffer et al., 2003; Martins et al., 2008).

그림 1. 전체 사례의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유형



나.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비교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에 대한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 잠재계층을 비교하기 위해, 각 집단 별로 성별과 부모학대를 포함한 조건모형의 GMM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빈곤 가구의 경우는 비록 모형 4의 AIC, BIC, aBIC의 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3에 비해 LRT 검정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엔트로피 지수 역시 모형 3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사례의 잠재계층 모형과 각 유형별 사례수를 고려해 볼 때 모형 3이 공격성 변화유형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데 실질적으로 더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비빈곤 가구의 경우는 모형 3을 최적의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빈곤 가구의 경우는 비록 계층수가 많아질수록 AIC와 BIC, aBIC의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모형 3과 모형 4의 LRT 검정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모형 3이 모형 4보다 더 간명하면서도 좋은 모형으로 판단된다. 또한 엔트로피 지수도 모형 3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 3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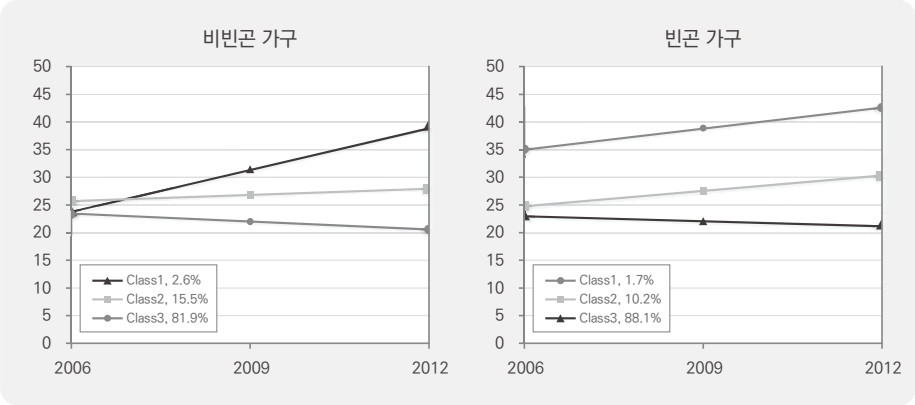
표 3. 비빈곤 가구와 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잠재계층 모형 검증

모형	Likelihood Ratio χ^2	df	AIC	BIC	Adjusted BIC	LRT (p-Value)	Entropy
비빈곤가구(n=388)							
2	-3075.574	17	6185.147	6252.396	6198.457	.005	.928
3	-3041.689	22	6127.378	6214.406	6144.603	.366	.895
4	-3009.756	27	6073.512	6180.320	6094.652	.201	.889
5	-3010.436	32	6084.872	6211.459	6109.927	.232	.883
빈곤가구(n=191)							
2	-1505.844	17	3045.688	3100.798	3046.950	.002	.955
3	-1491.463	22	3026.925	3098.244	3028.558	.048	.916
4	-1483.793	27	3021.585	3109.112	3023.589	.298	.906
5	-1470.256	32	3004.512	3108.248	3006.887	.239	.873

[그림 2]는 모형 3을 기반으로 비빈곤 가구와 빈곤 가구의 공격성 변화궤적 잠재유형 패턴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빈곤 가구와 빈곤 가구 청소년의 공격성 변화궤적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비빈곤 가구의 경우,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초등학생 시점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1.9%(323명, class 3)의 청소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격성이 소폭 감소하였고, 15.5%(53명, class 2)의 청소년은 중간 수준의 공격성을 고등학생 후기까지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6%(10명, class 1)의 청소년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격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에 빈곤 가구의 경우는 전체 중 88.1%(170명, class 3)의 청소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간 수준의 공격성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2%(16명, class 2)의 청소년은 고등학생 후기로 갈수록 공격성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전체 중 1.7%(3명, class 1)의 청소년은 초등학생 시기인 2006년도에 평균 35점의 높은 공격성을 보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성이 더 증가하여 2012년 청소년 후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심각한 공격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이 세 개의 뚜렷한 집단으로 분류되어 전체 연구기간 동안 평행적으로 발달되는 것은, Martins 등(2013)의 연구에서 나타난 발달궤적 유형과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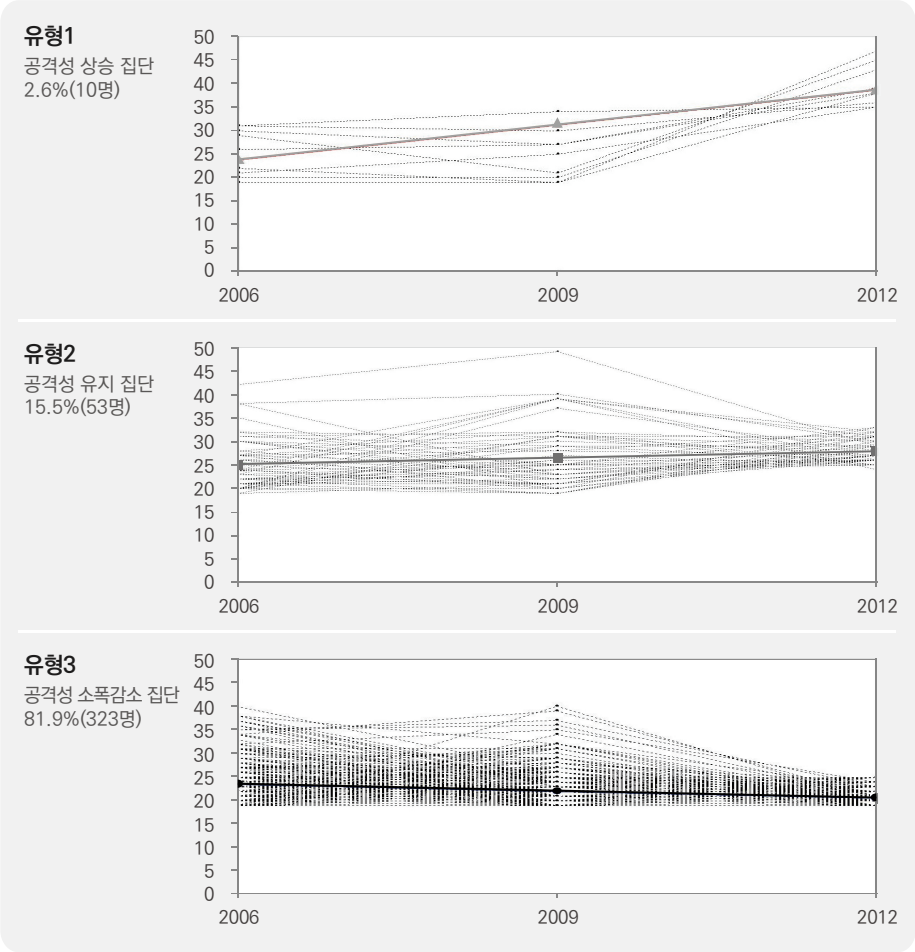
그림 2. 비빈곤 가구와 빈곤 가구의 공격성 변화궤적 잠재계층 유형 비교



다음은 보다 자세하게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공격성 변화궤적 유형에 따라 개인별 관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비빈곤 가구의 경우, 첫 번째 유형은 공격성 상승 집단으로 전체에서 2.6%(10명)의 청소년이 이 집단에 해당된다. 이들은 2006년도에 공격성이 20에서 30점 안팎의 중간 수준에 머무르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별 관찰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2009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유지하다가 청소년 후기인 2012년에는 30점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공격성 유지 집단으로 전체에서 15.5%(53명)의 청소년이 이 집단에 속한다. 이들은 초등학생 시기에 공격성 수준에서 비교적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이러한 상태가 2009년까지 유지되었다. 또한 일부 청소년은 2006년에 낮은 공격성을 보이다가 중학생 시기인 2009년도에 공격성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 청소년들이 2012년 고등학생이 되면서 개인 간 공격성 수준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초기와 중기에는 높은 공격성을 보이던 일부 청소년들도 2012년 청소년 후기에 접어들면서 중간 정도의 공격성 수준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은 공격성 소폭감소 집단으로 전체에서 81.9%(323명)의 청소년이 이 집단에 속한다. 간혹 개인별로 2006년에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거나, 2009년에 일시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있으나 2012년의 청소년 후기에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중간수준의 공격성으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아울러 성별과 부모학대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은 변화궤적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 반해, 부모학대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학대의 수준이 높은 경우 아이들의 초기 공격성 수준이 높으며 이후 시간이 지나도 공격성이 덜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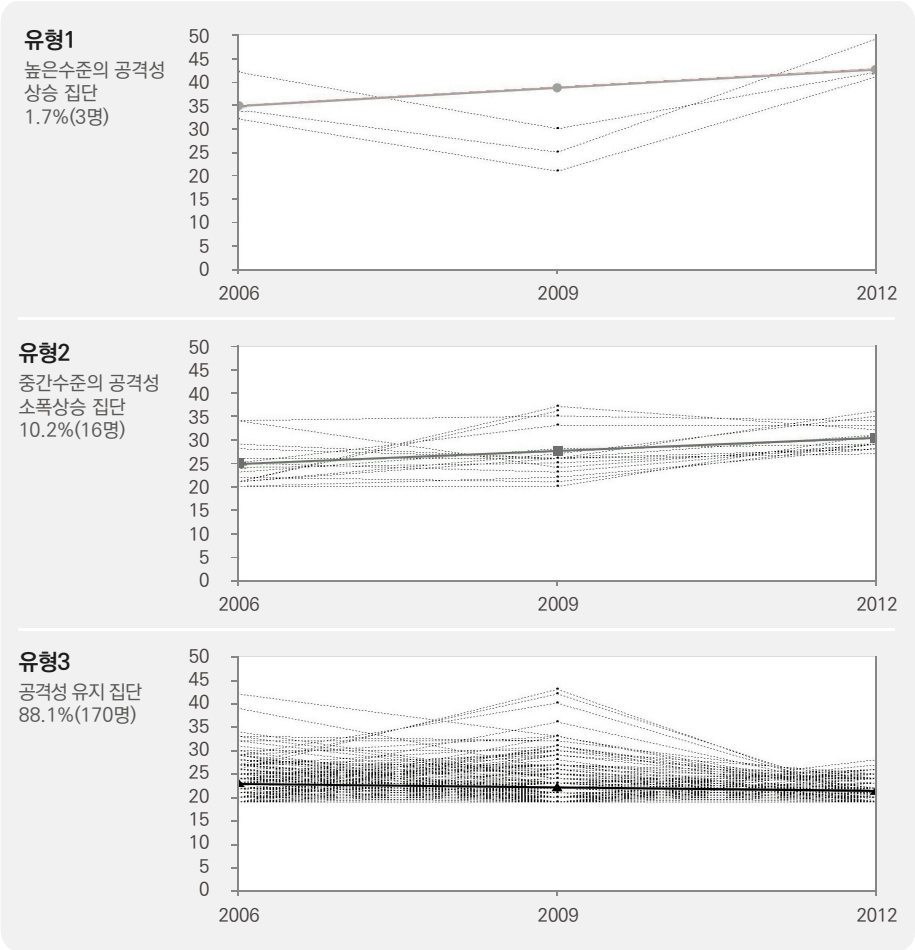
그림 3.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 잠재계층유형



빈곤 가구의 경우, 첫 번째 유형은 높은 수준의 공격성 상승 집단으로, 오직 1.7%(3명)의 극소수 청소년들만이 이 집단에 해당된다. 이들은 2006년인 초등학생 시기에 이미 중간 이상의 매우 높은 공격성을 보이다가 2009년에 공격성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청소년 후기인 2012년에 다시 급격히 공격성이 상승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중간 수준의 공격성 소폭상승 집단으로 10.2%(16명)의 청소년이 이 집단에 속한다. 이들 중 일부는 2006년에 중간 수준의 공격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상태가 2009년까지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2012년에 공격성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몇몇 청소년들은 2006년에 매우 낮은 공격성 수준을 보이다가 2009년 중학생 시기에 급격히 공격성이 상승하여 청소년 후기인 2012년까지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유지하거나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공격성 유지 집단으로 88.1%(170명)의 청소년이 이 집단에 해당된다. 비빈곤 집단의 유형 3과 마찬가지로 2006년의 초기에는 비교적 개인 간 공격성의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12년의 청소년 후기에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중간 수준의 공격성으로 떨어져 비슷한 상태로 수렴되었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은 2006년 초등학생 시기에 낮은 공격성을 보이다가 2009년에 급격히 공격성이 증가되었지만 청소년 후기인 2012년에는 다시 1차 시점의 수준으로 공격성이 떨어지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이는 국외 연구들에서 13~15세경에 공격성이 절정에 다다르다가 이후에는 초기상태와 유사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Karriker-Jaffer et al., 2008).

아울러 성별과 부모학대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은 비빈곤 가구와 마찬가지로 공격성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 반해, 부모학대는 공격성의 초기치에만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빈곤 가구는 부모학대가 높을 경우 아이들의 초기 공격성 수준이 높을 수 있으나, 이것이 이후 공격성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빈곤 가구에서 부모학대가 공격성의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 가구에서 부모학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김민정, 도현심, 2001; 김재철, 최지영, 2011; 김평화, 2013; Klein & Forehand, 2000).

그림 4. 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 잠재계층 유형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공격성이 매우 개별적이고 변동적인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를 횡단시점에서 연구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토대로 아동기 후기에서부터 청소년기 후기

에 이르기까지 공격성의 발달궤적 유형을 탐색하고, 이러한 공격성 발달궤적 유형이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복지패널의 CBCL 공격성 척도를 활용하여 국내 청소년들의 공격성 변화궤적을 살펴본 결과,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즉, 중간 정도의 공격성을 꾸준히 유지하는 집단(83.3%), 공격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집단(6.8%), 공격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집단(9.9%)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공격성 변화궤적을 이와 같이 3유형으로 구분한 경우와 일치한다(서미정, 김경연, 2010; Schaeffer et al., 2003; Bongers et al., 2004; Martins et al., 2013). 반면 한국청소년패널의 외현적 공격성만을 사용한 노언경과 홍세희(2009)의 연구에서 4유형(낮은수준 유지집단, 증가집단, 중간수준 유지집단, 높은수준 유지집단)으로 구분한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형별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하여 공격성 변화궤적 유형을 탐색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수준 혹은 중간 수준의 공격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집단이 전체의 85~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노언경, 홍세희. 2009; 서미정, 김경연, 2010),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83.3%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 유형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3개의 공격성 변화궤적 유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발달궤적의 패턴은 두 집단 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비빈곤 가구는 공격성 상승집단(2.6%), 중간수준 공격성 유지집단(15.5%), 공격성 소폭 감소집단(81.9%)로 구분된 반면, 빈곤 가구는 높은수준 공격성 상승집단(1.7%), 중간수준 공격성 소폭상승집단(10.2%), 중간수준 공격성 유지집단(88.1%)로 구분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 유형별로 개인 관측치를 살펴본 결과, 빈곤 가구나 비빈곤 가구에서 80% 이상의 대다수 청소년들은 모두 중저 수준의 공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시간에 따라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 간에 빈곤지위에 따른 집단 간 궤적의 차이는 가시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격성이 상승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비빈곤 가구에서는 2006년의 초기 시점에서 중간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다가 이후에 점차 상승한 반면, 빈곤 가구의 청소년들은 2006년인 초등학생 시절에도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례수가 적어 후속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빈곤 가구에서 유독 이런 사례들이 나타났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비빈곤 가구에서는 일부 청소년들이 초등학생 시기인 2006년도와 중학생 시기인 2009년도에 비록 높거나 중간 이상의 공격성을 보였지만 청소년 후기인 2012년에는 대부분 중간수준의 안정적인 공격성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반해, 빈곤 가구의 경우는 이와 같이 초기와 중기에 다양한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 청소년들이 2012년 청소년 후기에 공격성이 더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 공격성이 개인에 따라 매우 이질적이고 변동적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적 고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통제와 사후적 접근을 해야 하는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과는 달리, 청소년 공격성은 이후의 더 심각한 일탈행위에 대한 조기예측요인으로 차별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된 공격성 발달궤적의 이질적 특성은 향후 청소년 개인별 표적화된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격성을 중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약 80% 이상의 청소년들을 제외하고, 공격성이 초기부터 매우 높은 경우와 청소년 후기에 급격히 상승하는 일부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이제까지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 유형을 검증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초기 청소년기나 중·후기 청소년기에 국한해서 단편적으로 변화궤적을 살펴본 데 반해, 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 후기까지 청소년기 전체에 걸쳐 공격성의 변화궤적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직접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을 모두 포함한 CBCL 공격성 척도의 전체 문항을 사용하여 발달궤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일부 직접적인 공격성 문항만을 포함시킨 선행 연구들(김동기, 홍세희, 2009; 김세원, 김예성, 2009; 노언경, 홍세희, 2009; 서미정, 김경연, 2010; 최경숙, 2011)에 비해 보다 실질적이고 통합적으로 국내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과정을 탐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시도는 이후 청소년 공격성을 다른 외현화 문제와 구별하여 보다 예방적 관점에서 공격성에 대한 정교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에서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 유형이 어떻

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처음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에 있어서 80% 이상의 청소년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빈곤 가구의 경우 초기 시점인 아동기부터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와, 이후 비빈곤 가구에 비해 더 급격히 공격성이 상승되는 청소년들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잠재적 고위험군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잠재적 고위험군 아동들은 하나의 평균성장곡선을 도출하여 변화궤적을 탐색하는 기존 연구(김동기, 홍세희, 2007; 최경숙, 2011; Bongers et al., 2004)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집단이며, 오직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빈곤 집단과 비빈곤 집단을 비교한 본 연구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대상군이라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토대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의 세 시점에 대한 공격성 변화궤적을 탐색하고 있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복지패널의 특성상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가 총 세 시점 밖에 되지 않고, 각 측정시점 간 간격이 약 3년으로 다소 길다는 점이 큰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측정시점 간 간격을 좁혀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 유형을 재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공격성의 전체 척도를 활용하여 더 많은 측정시점과 축소된 측정시점 간 간격으로 공격성의 변화궤적을 탐색하기는 자료의 한계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들 중에 단지 성별과 부모학대만을 고려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성장혼합분석이 모형에 기반한 탐색적 군집분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른 요인들을 포함시킬 경우 상이한 잠재계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허만세, 2014). 따라서 향후 보다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잠재유형을 개인별 관찰치를 기반으로 가시적 비교에 의존했으나,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유형별로 다양한 관련요인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빈곤 가구에서 초기부터 공격성이 높은 아이들이나 이후 공격성이 급격히 상승되는 아이들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 공격성 발달과정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향후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과 구별된 특성으로써 청소년 문제의 조기예방적 개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김동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청소년 발달, 정신건강, 고급양적연구방법론 등이다. (E-mail: donghakim@gmail.com)

참고문헌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pp.57-79.

김동기, 홍세희. (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8**(2), pp.21-42.

김동하. (2014). 학교결석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과 예측요인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6**(3), pp.5-28.

김동하. (2015). **가구소득, 부모우울, 청소년 공격성 간의 종단적 상호교류관계 분석: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매개모형을 이용하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pp.149-167.

김세원, 김예성. (2009). 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성 발달궤적 및 예측요인. **인간발달연구, 16**(2), pp.87-107.

김정원, 김현주. (2007).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성 연구. **아동교육, 16**(2), pp.85-93.

김재철, 최지영. (2011).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0**(1), pp.19-33.

김준호, 정혜원. (2009). 부모애착과 비행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분석. **형사정책연구, 78**, pp.125-148.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김문길, 우선희, 박은영. (2007). **2007년 빈곤통계연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평화. (2012). **아동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결핍의 매개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노언경, 홍세희. (2009). 준모수적 집단 중심 방법을 적용한 청소년기 초기의 공격성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관련요인 검증. **조사연구, 10**(3), pp.37-58.

박민정, 박혜원. (2006). 자아개념, 애착, 교사 및 또래 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조선족 및 한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3), pp.79-89.

박민정, 최보가. (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pp.95-104.

박혜경, 박성연.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pp.87-98.

박현선, 박지명, 김정은. (2014). 부모의 학대와 자녀의 공격성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 빈곤 및 비빈곤 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pp.1-24.

배도희, 오경자. (2010). 한국판 COCL 공격행동척도의 하위 2 요인 모형탐색.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pp.371-390.

서미정. (2009).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와 비행, 우울/불안 및 학업성취감: 잠재성장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0**(2), pp.141-167.

서미정, 김경연. (2010).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성장혼합모형의 적용. **아동학회지, 31**(3), pp.83-97.

심응철. (1999).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2**(2), pp.24-34.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8).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오경자, 김은이, 도례미, 어유경. (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pp.53-71.

오승환. (2000). 소년소녀가장의 사회심리적 적응 결정요인. **사회복지연구, 16**(1), pp.117-141.

윤은진. (2010).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가족요인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장여옥. (2015).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2), pp.199-221.

정익중. (2009). 빈곤과 비행 발달궤적의 역동적 관계. **아동학회지, 30**(3), pp.113-125.

최경숙. (2011). **아동의 인터넷게임과 공격성에 관한 종단적 구조모형.**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최나연, 허집. (2014).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아동기 공격성에 대한 경시적 자료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5**(6), pp.1439-1447.

한은영. (2014).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8**, pp.209-234.

허만세. (2014). CES-D 로 측정한 우울증상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탐색: GMM 을 활용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재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6**(1), pp.307-331.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arber, B. K.(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ngers, I. L., Koot, H.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4).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behavi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5*(5), pp.1523-1537.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pp.710-722.

Dodge, K. A., Coie, J. D., & Lynam, D. (2006).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In Damon, W., Eisenberg, N., & Lerner, R.(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Vol. 6th.). New York: Wiley.

Farrell, A. D., Sullivan, T. N., Esposito, L. E., Meyer, A. L. & Valois, R. F. (2005).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Aggression, Drug Use,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Their Interrelations Over Time in Urban and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Resarch on Adolescence, 15*(2), pp.179-204.

Frick, P. J., Lahey, B. B., Loeber, R., Tannenbaum, L., Van Horn, Y., Christ, M. A. G., ... & Hanson, K. (1993).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and conduct disorder: A meta-analytic review of factor analyses and cross-validation in a clinic sample.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pp. 319-340.

Hawkins, J. D., & Weis, J. G. (1985). The social development model: An integrated approach to delinquency prevention.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6*(2), pp.73-97.

Karriker-Jaffe, K. J., Foshee, V. A., Ennett, S. T., & Suchindran, C. (2008).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Sex differences in trajectories of physical and social aggression among youth in rural area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8), pp.1227-1236.

Klein, K., & Forehand, R. (2000). Family processes as resources for African American children exposed to a constellation of sociodemographic risk fa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1), pp.53-65.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pp.45-59.

Lee, J. (2014). Temperament, parenting, and South Korean early adolescents' physical aggression: A five-wave longitudinal analysis. *Health Education Journal, 73*(3), pp.313-323.

Little, T., Henrich, C., Jones, S., & Hawley, P. (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the "whats" of aggressive behaviou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pp.122-133.

Loeber, R., & Hay, D.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pp.371-410.

Martins, S. S., Storr, C. L., Ialongo, N. S., & Chilcoat, H. D. (2008). Gender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characteristics and gambling among African-American adolescent gamblers.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17*(2), pp.126-134.

Martins, S. S., Liu, W., Hedden, S. L., Goldweber, A., Storr, C. L., Derevensky, J. L., et al. (2013). Youth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trajectories and subsequent gambling among urban male youth.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2*(5), pp.657-668.

McNeilly-Choque, M. K., Hart, C. H., Robinson, C. C., Nelson, L. J., & Olsen, S. F. (1996).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on the playground: Correspondence among different informant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1*(1),

pp.47-67.

Muthén, B. O. (2002). Beyond SEM: General latent variable modeling. *Behaviormetrika, 29*(1), pp.81-118.

Muthén, L. K., & Muthén, B. O. (2012). *Mplus user's guide 7: The comprehensive modeling program for applied researchers*. Los Angeles: Muthén & Muthén.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pp.535-569.

Prinzie, P., Onghena, P., & Hellinckx, W. (2006). A cohort-sequential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of normative CBCL aggressive and delinquent problem behavior: Associations with harsh discipline and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5), pp.444-459.

Sampson, R. J., Morenoff, J. D., & Earls, F. (1999). Beyond social capital: Spatial dynamics of collective efficacy for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5), pp.633-660.

Saner, H., & Ellickson, P. (1996). Concurrent risk factors for adolescent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9*(2), pp.94-103.

Schafer, J. L., & Olsen, M. K. (1998). Multiple imputation for multivariate missing-data problems: A data analyst's perspective.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3*, pp.545-571.

Schaeffer, C. M., Petras, H., Ialongo, N., Poduska, J., & Kellam, S. (2003). Modeling growth in boys' aggressive behavior across elementary school: links to later criminal involvement, conduct disorder,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al Psychology, 39*(6), pp.1020-1035.

Thornberry, T. P., Lizotte, A. J., Krohn, M. D., Farnworth, M., & Jang, S. J. (1991). Testing interactional theory: An examination of reciproc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family, school, and delinquency.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2*, pp.3-35.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A Comparison of Trajectories between Poverty and Non-poverty Groups

Kim, Dong Ha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plor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and to compare the trajectories between poverty and non-poverty groups. The study data were derived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sample consists of 604 youths observed from their late-elementary school years until the end of their high school years. Growth Mixture Models (GMM) were utilized to explore the heterogeneity in aggression development over three time periods. As a result, three distinct trajectories were identified for the entire sample: chronic moderate, moderate increasing, and low increasing classes. In addition, a difference between poverty and non-poverty groups was found. The majority of adolescents showed a consistently moderate level of aggression over the study period regardless of poverty status. However, some youths from impoverished families who initially had a high level of aggression were found to have an increased level of aggression by the end of their adolescence. These adolescents comprise a potentially high risk group that requires early intervention. The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prevention programming for youth with increasing aggression.

Keywords: Adolescence, Aggression, CBCL Scale, Growth Mixture Model, Poverty